10.15686/fkl.2024..61.136 OPEN ACCESS

「한중록」에 나타난 혜경궁 홍씨의 현실 인식 연구

-「읍혈록」(1802)과 「병인추록」(1806)을 중심으로

김정경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목차

1 서론
2 혈연에 기초하지 않은 권력의 계보
3 불의로서의 효와 의로서의 불효
4 혈연의 강조에서 비롯하는 종법제에 대한 저항
5 결론

이 논문은 2021년도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영조와 정조의 모순된 태도 그리고 사도세자와 홍씨 가문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보는 혜경궁의 관점이 어떠한 인식론적 토대에서 비롯하는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혜경궁이 1802년과 1806년에 쓴 「한중록」 제3부의 1편 「읍혈록」과 2편 「병인추록」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이 혜경궁의 '어머니' 또는 '딸'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다면, 본고에서는 글쓰기 주체로서의 혜경궁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으며, 「한중록」 제3부에 나타난 가문의 위기와 그 극복 과정을 서술하는 방식이 가문의 종통과 입후를 주된 소재로 하는 국문장편소설과 유사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본론에서는 영조와 정조 그리고 혜경궁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차례대로 검토했는데, 먼저 영조는 혈연을 지움으로써 지위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정조는 지워진 혈연을 되찾기 위해 지위를 포기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정조와 같은 태도를 가진 듯 보이는 혜경궁이 사실은 영조는 물론이고 정조와도 대립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밝혔다.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영조와 정조의 행위가 혈연과 지위의 엄격한 분리를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혜경궁은 이들과는 반대로 혈연과 지위의 긴밀한 관계를 지향한다고 본 것이다.

혜경궁의 국문장편소설 독자로서의 성격에 주목하면 그녀를 홍씨 가문의 대리인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 당대 사회의 중요한 갈등과 문제의식을 간파하고 이를 서사화하는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한중록」이 조선 후기 가부장제가 본격화되는 데 대한 불안과 저항을 담고 있는 텍스트임을 알게 된다.

국문핵심어: 「한중록」, 「읍혈록」, 「병인추록」, 혜경궁 홍씨, 임오화변, 영조, 정조, 사도세자, 국문장편소설

1 서론

"아! 과인은 사도 세자(思悼世子)의 아들이다."[1] 이는 왕위에 오른 정조가 내린 첫 번째 윤음(綸音)의 첫 문장이다. 1764년 2월, 당시 세손이던 정조는 영조로부터 경모궁이 아니라 효장세자의 대를 이으라는 명을 듣고 삼년상을 마치기도 전에 예법에 따라 상복을 벗어야 했다. 영조는 경모궁이 죽은 뒤에는 위호를 회복하고, '사도(思悼)'라는 시호와 '수은(垂恩)'이라는 사당의 칭호를 내려주었지만, 경모궁과 임오화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금했으며, 이를 어긴 이들을 엄벌에 처했다.[2] 세손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러던 세손이 왕이 되자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 정조는 예와 인정을 구분하며 사도세자의 추숭을 금하고, 혜경궁 역시 대비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한중록」에는 정조가 사도세자의 추숭을 자신의 일이 아닌 아들의 몫으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영조는 경모궁을 죽

1 빈전(殯殿) 문밖에서 대신들을 소견하였다. 윤음을 내리기를, "아! 과인은 사도 세자(思悼世子)의 아들이다. 선대왕께서 종통(宗統)의 중요함을 위하여 나에게 효장 세자(孝章世子)를 이어받도록 명하셨거니와, 아! 전일에 선대왕께 올린 글에서 '근본을 둘로 하지 않는 것[不貳本]'에 관한 나의 뜻을 크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예(禮)는 비록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인정도 또한 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향사(饗祀)하는 절차는 마땅히 대부(大夫)로서 제사하는 예법에 따라야 하고, 태묘(太廟)에서와 같이 할 수는 없다. 혜경궁(惠慶宮)께도 또한 마땅히 경외(京外)에서 공물을 바치는 의절이 있어야 하나 대비(大妃)와 동등하게 할 수는 없으니, 유사(有司)로 하여금 대신들과 의논해서 절목을 강정(講定)하여 아뢰도록 하라. 이미 이런 분부를 내리고 나서 괴귀(怪鬼)와 같은 불령한 무리들이 이를 빙자하여 추숭(追崇)하자는 의논을 한다면 선대왕께서 유언하신 분부가 있으니, 마땅히 형률로써 논죄하고 선왕의 영령(英靈)께도 고하겠다."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3월 10일 신사4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search/inspectionDayList.do.

2 "아! 위호를 회복하고 묘우를 두었으니 너의 아비에게는 더없이 곡진히 하였다. 이 뒤에 만일 다시 이 일을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이런 자는 아비도 업신여기고 임금도 업신여기는 역적이다. 너도 또한 혹 그러한 말에 동요하면 이 또한 할아비를 잊고 아비를 잊은 불효가 될 것이다." (『승정원일기』, 제1227책/제69책, 영조 40년 2월 23일(을사), 김영민, 「정조대 임오화변 논의의 전개와 사회적 반향」, 『조선시대사학보』 제40호, 조선시대사학회, 2007, 288쪽 재인용.)

음에 이르게 했지만 이내 지위를 회복시켰으며, 정조는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천명했음에도 직접 추숭하지는 않으려 했다. 이처럼 임오화변에 직접 관계된 이들조차 경모궁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모순적이어서, 당시 그의 죽음과 관련된 혼란스러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혜경궁은 「한중록」에서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자신의 친정 가문이 겪은 어려움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친정 가문의 신원과 사도의 추숭에 관련된 정조의 입장을 마치 같은 문제의 양면인 양 서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텍스트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두 1804년에 순조에 의해 한꺼번에 완성되리라는 정조의 약속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즉, 「한중록」의 제3부는 혜경궁이 친정 가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홍씨 집안이 누명을 쓰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혜경궁은 친정의 이 모든 시련을 사도세자와 정조의 동궁으로서의 위상을 흔들고자 하는 이들의 악행과 욕망에서 비롯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혜경궁은 사도세자를 없앰으로써 정조까지 제거하고자 했던 이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세자와 세손을 지키려 애쓴 홍봉한을 모함했으며 그 결과 가문에 비극이 닥쳤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대로 해명된다면, 다시 말해서 임오화변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온당한 처벌과 보상이 행해진다면 홍씨 가문의 위기 또한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임오화변 이후에 벌어진 사건과 정조의 언행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순조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도의 죽음에 대한 영조와 정조의 모순된 태도 그리고 사도세자와 홍씨 가문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보는 혜경궁의 관점이 어떠한 인식론적 차이를 갖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혜경궁이 1802년과 1806년에 쓴 「한중록」 제3부의 1편 「읍혈록」과 2편 「병인추록」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3] 「한중록」 제1부가 임오화변이 벌어지기까지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제2부 역시 중반까지는 사도세자의 죽음 이전을 그리고 있는 데에 비해, 제3부는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이 사건의 책임과 수습을 두고, 여러 세력들이 벌이

3 이글에서 참고한 원문 자료는 혜경궁 후손인 홍기영씨가 소장하고 있는 한글본 『읍혈녹泣血錄』을 저본으로 한 정병설 주석의 『원본 한중록』이다.

는 다툼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읍혈록」과 「병인추록」은 영조와 정조가 임오화변이라는 충격을 대하는 태도와 이 사건을 처리한 방식 그리고 혜경궁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에 매우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4]

지금까지 「한중록」 연구는 장르를 규명하는 데에 집중되었다가[5], 최근에는 주로 심리학적인 관점[6]과 정치적 측면에서 새로운 읽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록」의 정치적 목표에 주목한 연구들[7]에서는 이 책이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조대 순조년 간의 정국 속에서 노론의 입장 및 풍산 홍씨 가문의 부활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임을 강조하고 있다.[8] 본고의 작업 역시 임오화변을 둘러싼 언술과 행위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혜경궁 홍씨의 글쓰기가 갖는 수행적 기능을 찾아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 놓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들이 지금까지는

---

4 1802년 7월에 쓴 「읍혈록」은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이후 다시 친정에 화란이 닥치고 아우 홍낙임까지 사사되자 친정의 무혐의를 변호하기 위해 쓴 것"이며, 1806년에 쓴 「병인추록」은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자신들이 권력을 회복하자 이번에는 정순왕후 측을 비판 공격하기 위해 전편을 보충한 것"이다. 혜경궁 홍씨, 정병설 옮김, 『한중록』, 문학동네, 2010년, 459쪽.

5 김용숙과 정은임의 연구를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중록」의 장르를 쓰인 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부는 혜경궁의 자기 서사, 2부는 사도세자의 전기, 3부는 친정 옹호를 위한 정치적 논평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다. 김용숙, 『한중록 연구』, 정음사, 1988, 1-394쪽; 정은임, 『한중록 연구』, 국학자료원, 2013, 42-46쪽; 정병설, 「한중록, 조선의 산문 고전」, 혜경궁 홍씨, 정병설 주석, 『원본 한중록』, 문학동네, 2010, 450-455쪽 참조.

6 정하은과 김창윤은 경모궁의 특이한 행동과 의대증 같은 증상에 대해 정신의학적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시도하기도 했다. 정하은·김창윤, 「사도세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사도세자, 양극성 장애 환자인가 당쟁의 희생양인가」,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3(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4, 299-309쪽.

7 「한중록」의 정치적 의의를 정리한 것 가운데 대표적으로 최성환, 박광용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최성환, 「한중록의 정치사적 이해」, 『역사교육』 제115호, 역사교육연구회, 2010, 129-164쪽;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8, 1-340쪽; 이화형, 「「한중록」의 극적인 특성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254쪽 참조.

8 김영민, 앞의 논문, 306쪽.

혜경궁의 '어머니' 또는 '딸'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다면, 본고에서는 글쓰기 주체로서의 혜경궁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9]

이와 더불어 본고에서는 「한중록」에 나타난 가문의 위기와 그 극복 과정을 서술하는 방식이 가문의 종통과 입후를 주된 소재로 하는 국문장편소설[10]과 유사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한중록」 제3부를 한 편의 이야기로 보았을 때, 이 텍스트의 핵심 갈등은 사도세자의 추숭과 홍씨 집안의 몰락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한중록」은 사도세자의 죽음과 풍산 홍씨 가문 위기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둘러싼 세계를 재구성한 것으로, 즉 이 문제와 관계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의미화하기 위해 인물과 사건을 배열하고 설계한 것이다.[11] 그런데 경모궁, 나아가 정조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을 서술하는 「한중록」의 방식은 종통의 문제를 다루는 국문장편소설의 플롯과 매우 닮아있다. 이에 국문장편소설에서 종통과 입후의 문제가 전개되고 해결되는 방식을 참고로 하여 「읍혈록」과 「병인추록」을 읽어보는 것은 「한중록」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이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영조와 정조 그리고 혜경궁이 각각 어떠한 인물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더불어 국문장편소설의 주된 향유층인 양반 여성과 혜경궁 홍씨가 유사한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며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비교하는 작업은 조선 후기 여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12]

---

9 「한중록」에서 혜경궁 홍씨가 정치적 해명을 위한 글쓰기를 시도하였다는 최기숙의 연구, 영조에 대한 혜경궁의 부정적인 평가와 사도의 죽음에 대한 사적인 욕구를 읽어낸 김보현의 연구 등도 글쓰기 주체로서의 혜경궁을 강조하고 있다. 최기숙, 「자서전, 전기, 역사의 경계와 언술의 정치학」, 『여/성이론』 제1호, 여이연, 1999, 122-139쪽; 김보현, 「「한중록」의 발화에 대한 양태 분석」, 『여성문학연구』 제3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191-215쪽.

10 "종통과 입후를 규정한 종법(宗法)과 입후 관련법은 한 개인을 넘어 전 사회를 제어한다. 대하소설에는 이를 두고 벌어진 다양한 갈등이 형상화되어 있다. 여성은 그 과정에서 서사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9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129쪽.)

11 피터 브룩스, 『플롯 찾아 읽기』, 박혜란 역, 강, 2011, 24쪽 참조.

12 한중록의 제3부는 가문의 종통과 입후를 주된 소재로 삼은 국문장편소설과 유사한 갈등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가문소설 혹은 국문장편소설은 대개 정치적 사건

2 혈연에 기초하지 않은 권력의 계보

혜경궁은 임오화변에 대해 경모궁에게는 분명히 병이 있었고, 그 때문에 임금과 나라의 위태로움이 급박하여 영조께서 어쩔 수 없는 처분을 한 것이라고 정리한다. "영조의 처분도 어쩔 수 없이 하신 일이시고, 경모궁 겪으신 일도 어쩔 수 없는 것"[13]이며, 따라서 "정조의 처지도 애통은 애통대로 의리는 의리대로 각각 말을 하여야 실상에도 어긋나지 않고 의리에도 합당"[14]하다는 것이다. 이때 애통은 세자에게 병이 있으며 그로 인해 죽음을 맞은 데 대한 슬픔이며, 의리는 왕을 죽이려 했던 죄에 대한 처분으로,[15] 혜경궁이 생각하기에 애통과 의리를 구분하여야 경모궁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고, 영조도 자애롭지 못한 아버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며, 정조 또한 역적의 자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실의 문제를 주되게 기술한 「한중록」과 마찬가지로, 국문장편소설 가운데 가문의 종통과 입후 문제가 등장하는 작품에는 「소씨삼대록」, 「유효공선행록」, 「성현공숙렬기」, 「명주보월빙」, 「완월회맹연」 등이 있다.[16] 이 가운데 종법제에 의한 갈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작품인 「성현공숙렬기」와 「완월회맹연」 그리고 「유효공선행록」에서는 「한중록」과 마찬가지로 혈연과 종법 가운데 무엇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인물의 성격과 사건 해결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앞의 두 작품이 종법제를 옹호한다면, 「유효공선행록」은 실질적으로

보다는 가족 구성원끼리의 갈등에 서사의 비중이 놓이며, 가족 갈등 중에서도 처처 갈등이나 처첩 갈등 등 여성들끼리의 갈등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家長權) 행사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0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156쪽 참조.

13 혜경궁 홍씨, 『한중록』, 322쪽.

14 위의 책, 322쪽.

15 김보현은 애통을 아들의 병에 대한 슬픔으로, 의리는 지은 죄에 대한 처분 또는 옳고 그름의 구분으로 보면서, 「한중록」에 나타난 영조에 대한 평가의 양태와 혜경궁의 욕구의 양태를 검토하여 '사적인 애통'과 '공적인 의리'의 구분이 실질적으로는 불명확하고 근거가 없음을 주장한다. 김보현, 앞의 논문, 200쪽.

16 장시광, 앞의 논문, 130쪽.

혈연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한중록」과 보다 유사하다.[17] 한편, 부자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묘사된 작품에는 「유효공선행록」, 「보은기우록」, 「현몽쌍룡기」 등의 작품이 있으며,[18] 이 작품들에 나타나는 부자 갈등의 양상은 혜경궁이 묘사하는 영조와 경모궁의 대립과 매우 비슷하다. 가령 「유효공선행록」의 "명분 없이 자식을 때리는 폭력적인 아버지" 유정경이 "맏아들을 유연을 미워하여 급기야 嫡長의 지위를 폐"[19]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 그러하다. 유정경 외에도 「유효공선행록」의 가부장들은 하나같이 '천륜'이 아니라 '종통'을 선택하여 문제를 야기하며,[20] 이는 나라를 위해, 종사를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조와 닮았다.

이처럼 「한중록」과 국문장편소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애통과 의리, 인정과 예, 천륜과 종통, 사적 관계와 공적 질서의 대립에 기초해 있음을 알게 되고, 따라서 영조의 아들에 대한 몰인정함을 혈연에 대한 태도로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한중록」에 묘사된 영조는 비단 경모궁에게만이 아니라 인물을 평가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언제나 사사로운 정과 공적인 규범을 분명히 나누고 이 가운데 후자를 전자에 우선시한다.

> 셰샹이 모ᄅᆞ고 션친의 제우가 쳑년을 말ᄆᆡ암은가 ᄒᆞᆫᄃᆡ 실은 그러치 아니ᄒᆞ니, 계히년 봄의 션친이 관댱의로 슝문당의 입시ᄒᆞ오셔 주ᄃᆡ 딘퇴

17 김민정,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제도·혈연·이념의 상관관계 연구」,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65쪽.

18 이 가운데 「현몽쌍룡기」의 양세는 "아버지의 불인정, 차별 때문에 비뚤어져 가정 내의 분란을 만들고 아버지까지 죽이려 하는 데에까지 나아가며 마지막에는 역모에 가담했다고 하여 죽는다." (정선희, 「「현몽쌍룡기」의 '인정받지 못한 아들' 양세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5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293쪽. 295쪽.)

19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제40집, 한국고소설학회, 2015, 87쪽.

20 "「유효공선행록」에서는 군자든 아니든 예외가 없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부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들의 입장에서 가장 폭력적으로 행사되는 가장권의 예로는 효우의 완성을 위해, 가문을 위해 자기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장자권 문제, 즉 계후 문제로 불거진다.……유부의 가장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부를 위해 천륜 대신 종통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조혜란, 앞의 논문, 175쪽.)

ᄒᆞ오시ᄂᆞᆫ 거ᄉᆞᆯ 보오시고 긔이히 넉이오셔 드러와 션희궁긔 ᄒᆞ오시ᄃᆡ "오ᄂᆞᆯ 셰ᄌᆞ를 위ᄒᆞ야 졍승 ᄒᆞ나흘 어덧노라" ᄒᆞ오신ᄃᆡ 션희궁이 "누고 요니잇가" 뭇ᄌᆞ오니 '댱의 홍모'라 ᄒᆞ오시고, "이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뒤알셩을 뵈니 혹 이 과거의 ᄒᆞᆯ가 조이노라" ᄒᆞ시더라. 션희궁겨오셔 날ᄃᆞ려 뎐ᄒᆞ시니, 일노 보면 션친의 졔우가 션ᄇᆡ적의 나오셔 졍승을 허ᄒᆞ오시고,[21]

위의 인용은 홍봉한의 높은 지위가 척리인 그의 처지 때문이라는 세간의 비난이 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일화이다. 혜경궁은 선희궁의 말을 가져와 자신이 궁에 들어오기 전부터 영조가 홍봉한을 믿음직한 관리로 점찍었다고 하면서, 홍봉한의 능력이 뛰어남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영조의 성품, 즉 사사로운 정으로 공적인 일들을 처리하지 않는 그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처럼 영조가 공과 사 또는 핏줄과 규범 가운데 공적인 지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것은 혜경궁과 홍봉한이 경모궁의 핏줄이라며 그의 서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가) 문집의 임오 슈차가 어이 아니 드럿ᄂᆞ니 뭇ᄌᆞ오시기, 동싱들이 알외기ᄅᆞᆯ "모년ᄉᆞᄅᆞᆯ 즉금 공ᄉᆞ문ᄌᆞ의 거드웁디 못ᄒᆞ웁ᄂᆞᆫ ᄯᅴ웁기 못올니웁ᄂᆞ이다" ᄒᆞ온즉,[22]

(나) 경인 겨을의 최익남이가 샹소ᄒᆞ야 "동궁이 지금 ᄉᆞ도묘 젼ᄇᆡ 아니ᄒᆞ신 거시 미안ᄒᆞ다"ᄒᆞ고 슈샹 김치인의 죄라 ᄒᆞ니, '묘소의 뎐ᄇᆡᄒᆞ쇼셔' 말이야 올흔 말이나, 그 일이 ᄉᆞ셰 ᄌᆞ하로 쳥ᄒᆞ디 못ᄒᆞᆯ 터히오, ᄒᆞ물며 즉금 슈샹은 아랑곳도 업ᄂᆞᆫᄃᆡ 그리 샹소ᄒᆞ니, 익남이 본ᄃᆡ 힝신 업고 경쳔ᄒᆞ야 셰샹의 지목ᄒᆞᄂᆞᆫ 인믈이라. 본ᄃᆡ 뎡쳐의 ᄉᆡ집 겨「릐」로 블힝이 ᄂᆡ 집의 츌입ᄒᆞ야 면분이 이시니, 귀쥬ᄂᆡ가 구샹을 노하 후겸의게

21 혜경궁 홍씨, 정병설 주석, 『원본 한중록』, 문학동네, 2010, 294-295쪽.
22 위의 책, 299쪽.

쇠와 홍가의 지주라 츰소ᄒᆞ니, 영묘겨오셔 셩심의 모년ᄉᆞ를 션친이 나라 허믈을 민ᄃᆞᆯ고 김치인을 졔거ᄒᆞ랴 익남을 식여 샹소ᄒᆞᆫ다「가」 싹 고지 듯ᄌᆞ오셔, 그 친국을 대단이 ᄒᆞ오시고 아모죠록 홍가가 식엿다ᄒᆞ도록 여러 사ᄅᆞᆷ을 엄형ᄒᆞ시나, 진실노 홍시ᄂᆞᆫ 몰나시니 익남이ᄀᆞ디 다 댱폐ᄒᆞ나, 필경 홍시의게 다치 아니ᄒᆞᆫ디라.[23]

(다) 이놈이 팔월의 ᄯᅩ 샹소를 ᄒᆞ야 비로소 일물 말을 ᄒᆞ야 '드려 권ᄒᆞ다' ᄒᆞ고 무함이 망유긔극ᄒᆞ니, 영묘겨오셔 일물 말 거든 죄로 ᄒᆞ야 튱쳥감영 ᄂᆞ리워 보ᄂᆡ여 졍법ᄒᆞ시고, 의지도 그ᄯᅴ 잡혀드러 "일물이 무어시니" 무ᄅᆞ시니, 의지가 발만히 구러 "뎐히 일믈을 진뎡 모ᄅᆞ시오"ᄒᆞ엿기, 영묘겨오셔 "범샹ᄃᆡ역이라"ᄒᆞ오셔, 유보다가 가륨ᄒᆞ오셔 정형ᄒᆞ고 졔 쳐ᄌᆞ를 다 산ᄇᆡᄒᆞ야시니, 유런지 의지런지 일물 거든 죄로 극뉼을 써 겨오시지, 션친 말ᄉᆞᆷᄒᆞᆫ 거ᄉᆞ로 그리하야 겨실 니가 업ᄉᆞᆫ디라. 그놈들은 졍법ᄒᆞ시나 션친은 엄교가 진텹ᄒᆞ오셔 "봄브터 이번ᄀᆞ디 임오를 양셩ᄒᆞ미 뉘니, 뉘니"ᄒᆞ오시고, 면위셔인ᄒᆞ라 ᄒᆞ오시니,[24]

(라) 셜ᄉᆞ 션친이 잘못ᄒᆞ신 말이라 ᄒᆞ고, 제가 ᄂᆡ간 슈작을 듕궁뎐의 듯ᄌᆞᆸ고 영묘긔 샹소를 ᄒᆞ니, 션왕 하교쳐로 만일 영묘겨오셔 '츄슝슈작ᄒᆞᆫ다' ᄒᆞ오시고 셰손긔 미안ᄒᆞ오시더면 화ᄉᆡᆨ이 어ᄂᆞ 지경의 미ᄎᆞ리오. 이거시 션친을 무함ᄒᆞᆯ 분이 아니라, 제 본ᄃᆡ 흉계로 셰손ᄀᆞ디 해ᄒᆞ랴 ᄒᆞᄂᆞᆫ 계교니, 이런 음참흉역이 고금의 다시 어이 이시리오.[25]

위의 인용에서 (가)는 홍봉한의 문집을 작성하는 데에 임오년에 올린 홍봉한의 상소가 빠져있는 이유를 정조가 묻자 경모궁 관련 일은 공문서이든 사문서이든 글에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혜경궁의 동생들이 답하는 내용이다. (나)는 최

23 위의 책, 315-316쪽.
24 위의 책, 322쪽.
25 위의 책, 327-328쪽.

익남이 상소를 올려 홍봉한이 경모궁의 일을 언급하여 임금의 허물을 만들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웠다는 일화이고, (다)는 한유와 심의지가 뒤주에 관한 말을 꺼내어 사형 되고, 홍봉한 역시 임오년 일을 덧낸 사람이라며 벼슬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일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라)는 귀주가 영조에게 홍봉한을 모함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것이 추숭과 관련된 것으로 세손에까지 화가 미칠뻔했다는 사실을 적은 것이다. 이 몇 가지 일화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영조 사후에도 임오년의 일은 공문서든 사문서든 글에 올리지 못할 정도였기에(가), 영조 당시에 정적들은 홍봉한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홍봉한이 경모궁에 관한 일들을 언급했다고 모함했으며(나)(다), 경모궁 일을 거론한 죄를 묻는 데에는 세손이라도 예외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일화들은 영조가 애통과 의리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애통에 관한 일들을 침묵하게 하고 이를 어긴 이들을 예외 없이 엄하게 다스렸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보면 영조가 경모궁의 죽음 직후 그의 위호를 회복하고 시호를 내린 것은 혈연과 지위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혈연으로서의 경모궁을 지우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세자만을 남기기 위해서였으며, 이후 정조를 효장세자의 아들로 만든 것 역시 정조와 경모궁의 혈연관계를 없애려는 의지를 실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애통이 곧 혈연이며, 의리가 곧 사회적·공적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영조는 이 둘을 분리하여 의리를 중심으로 한 위계 관계, 즉 혈연에 기초하지 않은 권력의 계보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조의 아들에 대한 비정상적 불만과 같은 태도의 배후에서 혈연에 대한 영조의 부정적 인식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본고에서는 영조가 경모궁을 잔혹하게 처벌한 것은 혈연과 지위를 철저히 구분했기 때문에, 즉 천륜이라 할 수 있는 생물학적 가족 관계를 규범적 위계인 종법 질서와 별개의 것으로 여기고 그에 비해 덜 중요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구분에 비추어 본다면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뒤 곧바로 그의 지위를 회복시킨 것 역시 모순이 아니라 당연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영조에게 그가 죽게 한 경모궁은 혈연으로 맺어진 자신의 아들이자 세손의 아비라면, 다시 살려낸 사도세자, 즉 죽음 뒤 위호를 회복하고 시호를 내린 사도는 정치적 질서에 따라 배열된 관계 속의 한 위치라는

것이다. 영조에게 혈연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나 지우거나 끊어낼 수 있는 것으로서 공적 지위와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기에, 그는 아들을 지우고 죽은 세자의 지위는 남김으로써 후자를 중심으로 한 질서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3 불의로서의 효와 의로서의 불효

이 장에서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정조의 발화를 염두에 두면서, 「한중록」에 묘사된 정조의 언행을 살펴볼 것이다.[26] 우선 「한중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조의 발화는 혜경궁에게 한 다음과 같은 약속이다.

> 션왕이 비록 종샤를 위ᄒᆞ야 민면ᄒᆞ야 위에 겨시나 디통이 ᄆᆞᅀᆞᆷ의 ᄆᆡ치셔 남면의 거ᄒᆞ믈 즐겨ᄒᆞ디 아니ᄒᆞ시고 존호의 쳥ᄒᆞ믈 구디 막아 밧디 아니ᄒᆞ시고 ᄆᆡ양 쳔승을 탈ᄉᆞᄒᆞᆯ ᄯᅳᆺ이 겨시더니, 셩ᄌᆞ를 어드셔 종국의 부탁이 사ᄅᆞᆷ이 잇고 화셩을 크게 ᄲᅡ 경셩의 버금이 되게 ᄒᆞ고 집 일홈을 노ᄅᆡ당과 미로한뎡이라 ᄒᆞ시고, 날ᄃᆞ려 ᄒᆞ시ᄃᆡ
>
> "위를 탐ᄒᆞ미 아니라 마디못ᄒᆞ야 나라흘 위ᄒᆞ야 이셧더니 갑ᄌᆞ년이 원ᄌᆞ의 나히 십오셰니 죡히 위를 뎐ᄒᆞᆯ 거시니 처음 ᄆᆞᅀᆞᆷ을 일워 마마를 뫼시고 화셩으로 가고 평싱의 경모궁 일에 손으로 힝티 못ᄒᆞᆫ 지ᄒᆞᆫ을 일울 거시니, 이 일이 나ᄂᆞᆫ 영묘 하교를 밧ᄌᆞ와 힝티 못ᄒᆞᄂᆞᆫ 거시 비록 지극히 통원ᄒᆞᄂᆞ 또ᄒᆞᆫ 의리오. 원ᄌᆞᄂᆞᆫ ᄂᆡ 부탁을 바다 ᄂᆡ 마ᄋᆞᆷ을 밀위여 ᄂᆡ 힝티 못ᄒᆞᆫ 거ᄉᆞᆯ 제 ᄃᆡ신ᄒᆞ야 힝ᄒᆞᄂᆞᆫ 거시 또ᄒᆞᆫ 의리오, 오ᄂᆞᆯ날 졔신

26 이 문장이 지닌 복잡한 성격과 더불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발화의 내용이 정작 「한중록」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도세자와 혜경궁에 대한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한중록」 전편에 걸쳐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즉위 후 자신이 사도의 아들임을 드러낸 이 발화에 대해 혜경궁이 어떠한 서술도 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의외다. 물론 혜경궁이 의식적으로 이 내용을 빠뜨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는 것 역시 무엇인가를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는다고 할 때, 정조가 자신이 사도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말하려던 혹은 행하려던 바가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듯이 혜경궁이 이 발화를 누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감추려던 혹은 드러내고자 했던 의미가 있으리라고 짐작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은 날을 조차 아니ᄒᆞᄂᆞᆫ 거시 의리오. 타일 졔신은 신왕을 조차 봉승ᄒᆞᄂᆞᆫ 거시 의리니, 의리가 일뎡ᄒᆞᆫ 거시 업서 ᄯᅴ를 ᄯᅡ라 의리가 되ᄂᆞᆫ 거시니, 우리 모ᄌᆡ 사랏다가 ᄌᆞ손의 효도로 이 영화와 효양을 바드면 엇더엇더ᄒᆞ게ᄉᆞᆸᄂᆞ니잇가"

……

"이리ᄒᆞ야 ᄂᆡ ᄒᆞ디 못ᄒᆞᆯ 일을 아ᄃᆞᆯ의 효도로 일우고 도라가 디하의 뵈오면 므ᄉᆞᆫ ᄒᆞᆫ이 잇ᄉᆞ오리잇가"

ᄒᆞ시고 ᄯᅩ 원ᄌᆞ를 ᄀᆞᄅᆞ쳐 ᄒᆞ시ᄃᆡ

"뎌 아히가 경모궁 일을 아디 못ᄒᆞ야 뎌리 애를 쓰기 나ᄂᆞᆫ ᄎᆞ마 거드디 못ᄒᆞ야 제 외조ᄃᆞ려 니ᄅᆞ라 ᄒᆞ니, 그 사ᄅᆞᆷ도 ᄯᅩᄒᆞᆫ ᄃᆡ략만 ᄀᆞᄅᆞ치다 ᄒᆞ니, 이 아히ᄂᆞᆫ 경모궁을 위ᄒᆞ야 그 일ᄒᆞ랴 발원ᄒᆞ고 화ᄒᆞ야 난 아히니, 이 ᄯᅩᄒᆞᆫ 텬의라"[27]

"마마 뎍의ᄀᆞᄆᆞᆷ 잘 두오시오. 냥ᄂᆡ 손ᄌᆞ의 효도로 닙ᄉᆞ오시ᄂᆞᆫ 것 보ᄋᆞᆸ사이다"[28]

밑줄 친 부분에 잘 드러나듯이 정조는 마지못해 왕위에 머물렀기에 아들이 십오 세가 되는 해에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어머니와 함께 화성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 경모궁의 추숭 작업과 외가의 신원을 약속하면서도, 이 일을 위해 자신은 때가 되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정조의 계획대로라면 1804년 정조 자신은 왕위에서 물러나고, 아들이 그의 뒤를 이으며 그와 동시에 사도세자와 혜경궁이 왕과 왕비로서, 종묘에서 제자리를 찾게 된다. 그런데 정조에게 있어서 사도와 혜경궁이 공적으로 왕과 왕비의 지위에 오르는 것과 정조와 혜경궁이 궁궐을 떠나 화성에 머무는 것은 어떤 관계이기에 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 정조는 자신이 직접 아비를 추숭하고, 외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것은 '애통'에서 비롯하나 의리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이러

27 혜경궁 홍씨, 정병설 주석, 『원본 한중록』, 문학동네, 2010, 284-286쪽.

28 위의 책, 287쪽.

한 일들은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어 행해야만 비로소 의리에 합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정조의 이와 같은 말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실제로 사도세자가 왕으로 추숭이 된다고 하여 정조가 효장세자의 양자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왕실의 계보에서 정조는 여전히 효장세자의 아들이다. 하지만 정조는 자신의 친부인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으며, 늘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위에서 보았듯 영조는 사도의 공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 회복시켜주었지만, 혈연관계 그리고 애통의 감정과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정조가 사도와 자신의 혈연관계가 지워지고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되었음을 한스럽게 여기고 사도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싶어 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왕의 자리에 있는 한 효장세자의 아들로서 존재해야 하기에, 사도세자의 친자로서 살고 싶은 정조는 그러려면 궁궐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정조 대에도 임오화변에 대한 서술과 유포의 금지가 유지되었고, 관련 기록의 세초가 적극적으로 행해졌다.[29]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의 기록에 대해 정조와 영조의 입장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조가 사도의 개인적인 행적과 관계를 모두 지우려고 했다면, 정조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사도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했다. 정조는 세초 시에 왕실 및 공가(公家)에 남아 있는 사도세자 관련 기록을 모두 폐기하는 등 철저히 사도세자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면서, 자신이 직접 사도세자의 원지와 행장[30]을 작성했다. 영조의 행위가 개인으로서의 사도를 지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정조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도세자를 다시 쓰기 위해 기존의 기록을 삭제한 것이다. 정조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29 영조 40년(1764)에 영조는 효장세자의 아들로 후사를 잇게 하고, 사도세자에 대한 논란을 금지하는 대훈을 내렸다. 이후 1776년 2월 대리청정'의 명을 받은 정조는 승정원일기의 세초를 영조에게 요청하였다. 이처럼 당대에는 임오화변에 대한 서술이 불가했으며, 서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후 세초하거나 삭제, 망실되어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30 정조가 쓴 「현륭원지(顯隆園志)」와 행장(行狀)은 각각 『홍제전서』 권십륙, 권십팔에 수록되어 있다. 이은순, 「顯隆園志·行狀과 閑中錄의 比較硏究」, 『한국학보』 제22호, 일지사, 1981, 41쪽 참조.

유달리 총명했으며, 학문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자질을 지녔다고 하는데,[31] 정조는 영조가 지우려고 했던 사도세자의 이 같은 개인적인 모습을 복구, 실질적으로는 다시 쓰기 하여 그의 사적인 면모를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조의 1804년 구상을 보면, 정조 역시 영조와 마찬가지로 애통과 의리를,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영조가 애통 혹은 혈연의 문제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아 지우고 억압하려 했다면, 정조는 영조가 그토록 지우고자 했던 혈연관계의 회복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점도 깨닫게 된다. 정조는 의리에 따라 자신은 경모궁을 위한 일을 할 수 없으나, 자신의 아들은 이 모든 일을 마땅히 행하는 것이 '의'라며,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경모궁이 제 자리를 찾고, 혜경궁 또한 왕비의 예복을 입게 될 것이라 약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의 이면에는 자신이 죄인의 아들로서 왕이 될 수 없기에 효장세자의 양자가 되었지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으므로, 자신은 원래대로 경모궁의 아들이 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리라는 기대와 바람이 담겨있다. 이처럼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공적인 지위를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조에게는 혜경궁과 사도 그리고 자신으로 이루어진 혈연 중심의 가족 관계와 영조와 효장세자 그리고 자신과 아들 순조가 속한 규범 중심의 정치적 관계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이 분리를 확실히 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바, 즉 사도세자의 아들로 존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

당시 사대부들의 임오화변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누가 의로운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의'가 '불의'를 처벌하는 것의 문제였던 것이다.[32]

---

31 위의 논문, 47쪽.

32 정조대 임오화변 연구서로 대표적인 것은 박하원의 『대천록』이 있으며, 이후 『대천록』을 이어 '임오화변'의 전말을 밝히는 비슷한 자료들(작자 미상의 『모년잡기』 『임오일기』 『임오난여』 그리고 이광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광현일기』 등)이 수집, 편찬되어 떠돌아다니게 된다. 이 자료들은 대부분 일화와 상소문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임오화변과 관련된 인물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사건의 옳고 그름을 가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다. 김영민, 「正祖代 '壬午禍變' 논의의 전개와 사회적 반향」, 『조선시대사학보』 제40호, 조선시대사학회, 2007, 300쪽.

의리를 위해 애통을 견디고 종통을 위해 천륜을 억압하는 것이 영조가 요구한 질서였기에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효심은 왕실의 규범과 질서에 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정조는 사도에 대한 효심을 감추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따라서 「한중록」에 묘사된 정조의 행위는 '의 대 불의'의 관계를 '효 대 불효'의 관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정조에게는 사도세자에 대한 효가 왕실의 규범과 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효를 행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질서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효를 의에 우선하는 듯 보이는 정조의 태도는 국문장편소설 가운데 특히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사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조혜란은 이 작품 속 장자인 유연이 "의를 선택하면 불효하게 되는 형국"으로 통상적인 '효/불효' 혹은 '의/불의'의 대립과는 달리 불효와 불의를 견주는 상황에 있다고 하면서, 불효하는 것을 불의로 인식하는 작품 속 인물의 특질을 포착해낸다.[33] 이 소설은 불효를 불의에 견줌으로써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34]는 점에서 「한중록」과는 차이가 있지만, 효를 선택하면 불의가 되고 의를 선택하면 불효가 되는 상황에 놓인 인물의 갈등과 그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록」에서 정조가 놓인 처지를 이해하는 데에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우리는 정조의 행위를, 효가 곧 불의가 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효'의 영역과 '의'의 영역,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완전히 분리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혈연의 강조에서 비롯하는 종법제에 대한 저항

「한중록」에 묘사된 영조와 정조는 혈연과 지위를 엄격히 구분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영조는 자신과 경모궁 그리고 경모궁과 정조의 부자 관계를 지우려 하고, 정조는 경모궁과 자신의 부자 관계를 회복하고자 애쓰는데, 표면적으로 반대되는 이들의 행위는 사실 핏줄로 맺어진 관계와 서열에 따라 배치된 지위를 명확

33 조혜란, 앞의 논문, 163쪽.

34 위의 논문, 164쪽.

하게 분리하는 사고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효를 실행하기 위해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려는 정조와 의를 펼치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영조는 모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애통'과 '의리', '천륜'과 '종통'을 엄밀히 구분해야 했으며, 따라서 이들은 "서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거울처럼 되비치고 있다."[35]

> 그놈들이 ᄯᅩ ᄒᆞ딕 ᄂᆡ 션친을 해ᄒᆞ여야 ᄌᆞ궁지심이 평안ᄒᆞ리라 ᄒᆞ고 ᄯᅩ ᄒᆞ기를 ᄂᆡ 션친을 해ᄒᆞᆫ 후 날을 위안ᄒᆞᆯ 도리를 ᄒᆞ리라 ᄒᆞ야시니, 그놈들이 저히도 부모가 잇고 정텬입디ᄒᆞ야 인형을 쓰고 난 거시니 만고의 그 아비를 그 아ᄃᆞ님의 손이 해ᄒᆞ야든 그 모 되ᄂᆞᆫ ᄯᅳᆯ의 ᄆᆞ음이 엇디ᄒᆞ야 평안ᄒᆞ며, 그 모의 아비를 해ᄒᆞ고 그 모를 위로ᄒᆞ리라 ᄒᆞ며, 어미를 안치고 무죄ᄒᆞᆫ 외조를 해ᄒᆞ야, 그 님군의게 므ᄉᆞᆷ 덕과 효가 되리오.
>
> 외면으로ᄂᆞᆫ 션친을 해ᄒᆞ려ᄂᆞᆫ 말이나 실은 날을 업시ᄒᆞ고 션왕이 세상의 셔디 못ᄒᆞ시게 ᄒᆞ랴ᄂᆞᆫ 흉계오, 늘적의 흉소 후의 션왕이 하교ᄒᆞ시ᄃᆡ "만고의 국왕의 외조를 ᄉᆞ죄로 더으ᄂᆞᆫ ᄃᆡ가 어ᄃᆡ 이시리오. ᄂᆡ가 남면을 즐겨ᄒᆞ디 아니ᄒᆞᆫ 디 오래니, 맛당이 졀부ᄒᆞᄂᆞᆫ 의를 ᄲᅢ리라"ᄒᆞ시ᄃᆡ, 그후 ᄯᅩ 관쥬와 니환이 니어 샹소ᄒᆞ야 갈ᄉᆞ록 흉악ᄒᆞ니, 션왕이 니환이 쳐분ᄒᆞ실 ᄊᆡ "인군의 졀부지교를 듯고도 오히려 이리ᄒᆞ니 인신분의가 엇디 이러ᄒᆞ리오"ᄒᆞ시고[36]

위의 인용은 천하를 버릴지언정 아버지를 버릴 수 없다던 순임금의 일화를 가져와 어머니를 업고 도망가는 '의'를 쓰겠다고 한 정조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다. 혜경궁은 홍봉한에 대한 "그놈들"의 비난은 홍봉한을 해함으로써 자신을 없애고,

---

35 영조와 정조가 사실은 애통과 의리의 구분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하게는 영조가 의리를 정조가 애통을 대표한다면 이 둘이 각각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얽혀야만 의도한 바를 성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왕으로서의 권위가 없다면 혈연을 선택하고자 하는 정조의 바람은 성취될 수 없을 것이며, 사도와의 친자 관계가 존재했기에 이를 지움으로써 영조는 규범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다.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안티고네의 주장』, 동문선, 2005, 29쪽 참조.

36 위의 책, 416쪽.

정조까지 세상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흉악한 계략이라고 보고, 아버지와 딸 그리고 어머니와 자식이 그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를 마치 별개의 문제인 듯 여기는 "그놈들"을 비난한다. 정조 역시 "맛당이 졀부ᄒᆞᄂᆞᆫ 의를 쓰리라"라는 데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왕위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를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효'를 중시하는 정조의 발화를 인용하고, 입양을 추진하려는 이들을 비난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미루어 보면 혜경궁은 혈연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점에서 정조와 같은 편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혜경궁이 정조의 효심에 감동하고 1804년의 구상을 기다렸다고 해서, 아들이 왕위를 넘기고 자신과 함께 궁을 떠나 화성에 머물기를 진정으로 원했다고 할 수 있을까.

(가) 션왕이 이놈들의 궁텬극디ᄒᆞᆫ 죄악을 모ᄅᆞᄂᆞᆫ 거시 아니로ᄃᆡ 다사릴 ᄊᆡ가 이실 거시오, 그젼은 하 흉악ᄒᆞᆫ 놈들이니 깁흔 원을 브ᄅᆞ며 큰 난을 지을가 념녀ᄒᆞ샤 아딕 됴토록 위안ᄒᆞ야 갑ᄌᆞ를 기ᄃᆞ리랴 ᄒᆞ야 겨시니[37]

(나) "「주고총셔」의 ᄒᆞᆫᄆᆞᄃᆡ 발휘ᄒᆞᆯ 말은 남겨두어시니 이후 가국이 ᄐᆡ평ᄒᆞ야 쾌히 간힝ᄒᆞᆯ ᄊᆡ의 더ᄒᆞ야 너흐려노라"ᄒᆞ오시던 말ᄉᆞᆷ이 시방도 귀예 잇고 ᄯᅩ 갑ᄌᆞ를 기ᄃᆞ리셔 아ᄃᆞ님 손을 비러 가국 대쇼ᄉᆞ를 다 쾌히 ᄒᆞ야 노코 우리 션친의 보셩궁 안종샤ᄒᆞ오신 공과 튱을 포쟝ᄒᆞ오셔 "시호를 튱ᄌᆞ로 고치려노라"ᄒᆞ시던 거시니[38]

(다) 다만 ᄂᆡ 일싱 샹통ᄒᆞ야 ᄒᆞ고 애ᄃᆞ라 ᄒᆞ야 션왕긔도 ᄒᆞ던 말이어니와, 병신년 니환의 샹소 비답의 일물ᄉᆞᄂᆞᆫ 영묘 하교로 입증ᄒᆞ야 쳥탈ᄒᆞ시고, 인ᄉᆞᆷ일은 김치인이 병슐 도졔됴로 신폭ᄒᆞ야 그 말도 허언이 되야시나, 그ᄊᆡ ᄂᆡ 집 모양이 화ᄉᆡᆨ이 도텬ᄒᆞ고 귀쥬의 당이 다 드러와 국영

37 위의 책, 418쪽.
38 위의 책, 435쪽.

이를 쇠일 ᄯᅴ니, 션왕이 국영이게 옹폐ᄒᆞ시물 일시 바드셔, 여시여시 일절을 우리ᄂᆞᆫ 발명ᄒᆞᆯ 만치, 뎌놈들은 잡고 칠 만치, 양시빵비로 두동ᄲᅥᆫ게 비답을 ᄒᆞ야 겨시니[39]

「한중록」에서 정조의 1804년 구상을 이처럼 반복적으로 서술한 것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정조의 뜻을 순조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가)(나) 그리고 이때 혜경궁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도세자의 추숭과 함께 홍봉한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던 정조의 약속이 손자에 의해 지켜지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중록」에서 혜경궁은 정조의 약속을 반복해서 서술하며 정조가 외가의 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보다 확실하게 외가의 누명을 풀어주지 않는 데 대해 의아해한다(다). 이 모든 것이 1804년에 해결될 것이라 장담하는 정조를 믿지 않을 수는 없지만, 왜 당장 그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인지, 왕위에 있을 때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에도 그리고 이 글을 쓰던 순간에도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렇기에 혜경궁은 1804년에는 모든 일이 한 번에 해결되리라는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고 아들에게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해 정조는 자신이 아무렴 나이 든 어미를 속이겠느냐며 역정을 내고 혜경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여 혜경궁의 침묵을 그녀가 정조의 구상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정조가 원하는 것이 임금이라는 지위를 포기해서라도 영조로 인해 지워지고 잊혀진 혈연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라면, 혜경궁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정치적인 위상 혹은 명예를 되찾는 것이고 여기에는 임금이라는 지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혜경궁은 외조부에 대한 정조의 효심이 사적인 차원에서 표현되기보다는, 외조부의 충심에 대한 손자인 왕의 인정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랐다.[40] 혜경궁은 혈연 질서와 신분 질서를 별개의 것

39 위의 책, 432쪽.

40 "하지만 혜경궁 친정의 완전한 신원은 쉬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동생 홍낙임은 1807년에 복관되었지만, 작은아버지 홍인한은 1858년에야 복관되었다. 그리고 혜경궁과 정조가 그토록 원했던 사도세자의 추숭은 고종대인 1899년에야 이루어졌다. 이로써 사도세자는 장조가 되었고, 혜경궁은 덩달아 의왕후가 되었다." (정병설, 「인간과 정치의 겉과 속」, 혜

으로 여기기보다는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정조와 구별된다. 혜경궁은 혈연을 토대로 왕실의 질서를 유지하고 굳건히 하는 것, 즉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와 그 아들인 정조, 그리고 정조의 아들 순조가 차례로 왕위에 오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영조의 갑신처분에 대한 혜경궁의 좌절 역시 그녀가 효와 의, 애통과 의리의 구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혜경궁에게 있어서 정조를 효장세자의 아들로 만든 것이 사도세자의 죽음만큼이나 커다란 상처인 것은 그것이 정조와 사도의 혈연관계를 지우는 일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 일이 옳지 않은 것인 이유는 애통과 의리를 구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가) 그ᄯᅴᄂᆞᆫ 바로 나라흘 옴기고 효묘 이후 뉵ᄃᆡ혈믹을 ᄭᅳᆫ허ᄇᆞ리랴 ᄒᆞ야, 팔ᄌᆞ 흉언분이 아니라 'ᄐᆡ조의 ᄌᆞ손이 어ᄂᆞᆫ 사ᄅᆞᆷ이 가치 아니ᄒᆞ리' ᄒᆞ야시니, 이ᄂᆞᆫ 션왕이 김니셩의게 드ᄅᆞ신 말ᄉᆞᆷ으로 ᄂᆡ게 옴기시던 거시니, 저히 외손어더 외가 되랴ᄂᆞᆫ 일이 다시 의심이 어이 이시리오.[41]

(나) ᄒᆞ물며 슌젼이 병환이시고 본셩이 아니신 줄은 거셰 다 알거ᄂᆞᆯ 이 흉도놈들은 브ᄃᆡ 병환이 아니 겨시고 죄로 그리되신 양으로 ᄒᆞ야 무하ᄆᆞ니, 셩ᄌᆞ신손이 다 경모궁 혈믹으로 이 나라흘 니으시며, 인ᄒᆞ야 망극ᄒᆞᆫ 흉무를 쾌히 벗디 못ᄒᆞ시ᄂᆞᆫ 일이 아니 지원극통이며,[42]

(다) 망극ᄒᆞᆫ ᄯᅴ를 당ᄒᆞ야 그 쳐분이 나니, 저히 ᄆᆞᄋᆞᆷ의 '그 아바님이 그리되여시니 그 아드님을 보젼치 못ᄒᆞᆯ 거시오, 만일 부ᄌᆞ분을 다 쳐치ᄒᆞ면 쥬샹이 다른 아ᄃᆞᆯ이 아니겨시니 양ᄌᆞ가 될 거시오, 양ᄌᆞ 곳 ᄒᆞ면 저히가 외가가 되야 부귀를 기리 누리리라'ᄒᆞ야, 귀쥬네ᄂᆞᆫ 안흐로 흉언패셜노 춤간이 무소부디ᄒᆞ고, 한녹이 밧그로 망측ᄒᆞᆫ 의리를 혀나혀 이 흉

경궁 홍씨, 정병설 옮김, 『한중록』, 문학동네, 2010, 468쪽.)

41 혜경궁 홍씨, 『원본 한중록』, 411쪽.

42 위의 책, 430쪽.

언을 제 친구간의 은휘치 아니코 ᄒᆞ야시니,[43]

(라) 저히가 경모궁 혈믹을 업시ᄒᆞ고 외가 되랴ᄂᆞᆫ 계교를 일우디 못ᄒᆞᆫ 후, ᄂᆡ 집이 죵시 동궁 외가 되ᄂᆞᆫ 줄을 에분ᄒᆞ야 쳔쳔만만 의외 갑신년 졍종통 일을 영묘긔 현혹ᄒᆞ야 민ᄃᆞ라내ᄂᆞᆫᄃᆡ 그놈들의 의논이 경모궁을 병환이 아니시고 죄가 겨신 양으로 말을 ᄒᆞ야 션왕을 해ᄒᆞ디 못ᄒᆞᆯ 지경이 된 후ᄂᆞᆫ 출히 양ᄌᆞ를 보내야 경모궁을 폐히고 겸ᄒᆞ야 ᄂᆡ 집이 외가가 되디 못ᄒᆞ게 ᄒᆞ려ᄂᆞᆫ 의ᄉᆞ로 그 흉악망측 고금의 업ᄂᆞᆫ 일을 찬조ᄒᆞ야 일워노코, 그려도 ᄂᆡ 집이 션왕의게 본ᄃᆡ 외가니 골육지정은 쩌힐 길히 업술가 념녀ᄒᆞ야, 갑신을유간부터 뎡쳐를 씨고 말 지어노키를, '공가 ᄆᆞᄋᆞᆷ의 셰손이 제 외손이 아니 되엿기 댱ᄂᆡ 부원군 될 길히 업서 셰손긔ᄂᆞᆫ 졍셩이 업서디고 인진이를 유의ᄒᆞ야 댱ᄂᆡ를 ᄇᆞ란다'ᄒᆞ야, 듕의를 의혹게 ᄒᆞ고 불언듕 날ᄀᆞ디 무함ᄒᆞ야시니, 만고의 그런 흉언이 어이 이시리오.[44]

(마) ᄂᆡ 션친이 외손 마노라긔 불니ᄒᆞ고 인진이 츄ᄃᆡᄒᆞᆫ다 말은 삼쳑동ᄌᆞ도 고디듯디 아니ᄒᆞᆯ 거시니, ᄒᆞ물며 션왕의 영명ᄒᆞ오시므로 어이 츄호나 의심ᄒᆞ야 겨시리오. ... 이 일이 농가셩진ᄒᆞ야 삼십년 후에 ᄂᆡ 동싱이 션친 년좌로 인이 죽ᄂᆞᆫᄃᆡ 혼가디로 피화ᄒᆞᄂᆞᆫ 지경의 니ᄅᆞ러시니 고금텬하「의」 이런 지원지통의 일이 다시 어이 이시리오.[45]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혜경궁은 정조를 폐하고 양자를 들여 외가의 지위를 차지하고자 효종 이후의 육대혈맥을 끊으려는 이들을 강하게 비난한다(가). 그러면서 영조 이후 사도세자의 혈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도세자가 죄인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 현실을 원통해 하는데(나), 이를 통해서도

43 위의 책, 410쪽.
44 위의 책, 413쪽.
45 위의 책, 412쪽.

혈연을 바탕으로 왕실의 계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인식, 혈연과 지위가 별개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그녀에게 강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혈연에 기반한 위계를 강조하는 혜경궁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외손자인 정조를 두고 인이를 추대하려 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였을 것이다. 자기 딸이 낳은 손자가 있는데, 서자인 인이를 위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라)(마). 따라서 태조의 자손이면 누구든 왕이 될 수 있다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혜경궁이 볼 때 자신들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고, 이를 위해 입양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왕실의 계보를 인위적으로 이어가려는 의롭지 못한 자들일 뿐이다(다).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을 대신해 양자를 들여 가문을 잇게 하는 일은 앞서 언급한 국문장편소설들에서 볼 수 있는데, 「한중록」의 경우엔 아비가 바뀐다는 차이가 있기는 해도 입양을 이용하여 계보를 정리하려 한다는 면에서 소설 속 양반 가문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46] 소설에서 입양을 기반으로 하는 종통의 계승과 혈연 승계를 주장하는 입장 간의 충돌이 나타나듯, 「한중록」에도 입양을 통한 왕위 계승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왕위 계승이 대립하는 것이다. 이때 혜경궁은 후자의 입장에서, 왕실의 질서와 규범을 중시하지만 양자를 부정적으로 보며, 혈맥과 혈통을 강조하지만 핏줄로만 이루어진 가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영조는 제도와 규범을 무엇보다 우선하며 정조 역시 이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혜경궁은 입양을 해서라도 그러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혜경궁은 혈연과 지위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리고 혜경궁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조와 정조 그리고 혜경궁의 행위를 자애나 효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인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즉 「한중록」에 나타난 권력을 향한 욕망과 핏줄에 대한 연민이라는 대립이 어떠한

46 "조선 후기 사회에는 양자 중심의 입후와 혈연 중심의 입후가 공존" (구선정, 「조선후기 여성의 윤리적 지향과 좌절을 통해 본 가문의 정의-국문 장편소설 「완월회맹연」의 '소교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47집, 한국고소설학회, 2019, 6쪽)하였으며, 이 둘 사이의 갈등은 국문장편소설의 소재로 종종 등장했으므로 혜경궁의 좌절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배경에서 출현했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정조와 혜경궁을 가장 괴롭힌 것 가운데 하나인 영조의 갑신처분 그리고 혜경궁과 홍봉한을 곤경에 빠뜨린 김귀주의 계략에는 공통적으로 '입후' 즉 '양자[47]'의 문제가 놓여 있다. 혜경궁은 정조를 효장세자의 아들로 만든 영조의 처분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절망했다. 또한 정순왕후의 측근인 김귀주와 김한록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영조의 양자를 들임으로써 세자의 외가가 되어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했는데, 혜경궁은 이 같은 음모를 의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단호히 비난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양자를 들이는 것이 종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책으로 점차 확고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순왕후 측에서는 당대에 적극적으로 권장, 실시되던 입양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 했으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죄인인 사도세자와 그의 아들인 정조를 대신할 누군가를 태조의 자손 가운데에서 입양하는 것은 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종법제에서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혈연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의 제도에 의해 정해지기에 입양이 문제시되지 않는다.[48] "종법과 관련해 17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기존의 친자 중심에서 양자 중심으로 변화"[49]했으며, 이는 "입후를 비롯한 종법은 개인에게나 왕실에나 유교적 가계 계승 형태를 정착시키는 데 최적의 제도"라고 보는 위정자들의 판단에 기인했다.[50] 그리하여 "종법은 조선 후기에 가면 조선 성리학이 일반화되는 것과 같이 가족제도의 일반적

47 "양자는 가계계승을 중요시하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며, 형망제급의 원칙을 부정하고 서얼의 가계계승을 차단하여 적통으로 가계를 계승시키기 위한 종법제도가 정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창기, 「성리학의 도입과 한국가족제도의 변화-종법제도의 정착과 부계혈연집단의 조직화 과정-」, 『민족문화논총』 제46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126쪽.)

48 조선시대 "종법제의 경우 명종 대에 이르러 확립이 되고, 입후 제도는 성종 때 『경국대전』(1485)이 완성되며 일단락을 이루나, 종법제에 입각한 입후제도는 명종 대를 지나 17세기 중반인 현종 때에서야 거의 완성된다. 이처럼 종법제와 입후 제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는 성리학적 의리론의 강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장시광, 앞의 논문, 130-131쪽.)

49 위의 논문, 149-150쪽.

50 위의 논문, 147쪽.

인 원칙”[51]이 되고, 이러한 종법제에 따르면 영조에 의해 정조가 효장세자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한중록」에서 이를 문제 삼는 이유는 “조선의 입후법은 순수한 의미의 입양이 아니라 혈연을 기반으로 한 제도”였으며, 19세기에도 여전히 혈연주의가 종법제의 이면에 남아 있었고[52], 혜경궁 또한 이와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혜경궁이 입양이나 이와 관련된 종법 등에 특별한 의견이나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한중록」에서 남편 죽음의 원인을 병이라 명시함으로써 정조는 죄인의 아들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따라서 입양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세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악행이 되므로 혜경궁은 자연히 입양을 통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종법제로 대변되는 규범적 질서를 부정하는 입장에 놓인다. 실제로 「한중록」에서 외할아버지, 혈맥, 골육지정 등 혈연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거나 혈연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양자, 입양 등과 같이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질서와 관계된 단어는 부정적인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이때 혜경궁이 입양을 부정적으로 여긴다고 해도 그녀가 혈연과 지위를 서로 모순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중록」에서 그녀가 궁극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친자관계를 바탕으로 한 왕실의 계보를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혜경궁과는 다르게, 영조와 정조는 혈연과 지위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 여긴다고 보았다. 이때 혈연과 지위의 구분이 명확해질수록 종법제는 보다 확고해지고, 그럴수록 여성의 역할은 점차 배제되기에 영조와 정조가 지향하는 애통과 의리, 혈연과 제도의 구별은 남성적 질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중록」에 서술된 영조와 정조의 질서, 곧 남성적 질서는 공적 영역을 규제하는 담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하는 담론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남성적 질서를 이처럼 내용의 차원이 아닌 구분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면 자연히 여성적 질서는 남성적 질서의 대립항이라기보

51 김민정, 앞의 논문, 13쪽.

52 위의 논문, 41-43쪽.

다는 공과 사를 뚜렷이 가르는 남성적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남성적 질서 안에 배태된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종법제의 확대가 혈연으로 이루어진 사적 영역을 구성하였으며, 공적 영역에서 배제된 여성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놓인 것이기 때문이다.

정조의 1804년 구상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조가 1804년에 되찾으려고 했던 혈연 가족은 영조가 해체한 가족이 아니라, 그 안에 규범, 지위, 제도 등의 요소가 모두 제외된 것으로 "친족 관계의 언어를 정치 관계의 언어에서 분리"[53]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혈연으로 맺어진 정조의 이 새로운 가족은 정치가 배제된 영역이기에 종법제의 확립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소외된 여성이 머물 수밖에 없는 여성의 공간이다[54]. 정조의 의도가 어떠했든 혈연과 제도를 분리하려 한 그의 노력은 혈연을 지우려 한 영조의 기획과 마찬가지로 부계 중심의 왕실 질서를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1804년에 홍씨 가문의 신원을 해주겠다는 정조의 구상에 혜경궁이 쉬이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듯 이를 되풀이하여 서술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것은 정조의 이 같은 계획이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여성인 자신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혈연과 지위의 분리를 지향하는 종법적 질서를 남성적이라고 한다면, 혈연과 지위의 분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서사화한 혜경궁의 행위는 남성적 질서에 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19세기 남성 위주의 종법제와 입후제도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상층 여성들은 이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당

53 낸시 암스트롱, 『소설의 정치사: 섹슈얼리티, 젠더, 소설』, 오봉희, 이명호 옮김, 그린비, 2020, 123쪽.

54 18세기말-19세기초에 들어와 문장 또는 문중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입후권이 약화되었다. "사회적으로 입후가 확산되면서 18세기 중반부터 부모가 없는 경우에 문장(門長)이 청원할 수 있는 쪽으로 입후법이 전환되며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이 법제의 변화는 부모의 입후권 특히 모의 입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컸다." (한효정, 「조선 후기 양반 여성의 모권(母權)과 입후(立後) 분쟁」, 『여성과 역사』 제38호, 한국여성사학회, 2023, 41쪽.)

시 국문장편소설의 주된 향유층이던 이 여성들은 작품 속 여성 인물이 이러한 제도에 반발하는 모습을 통해 잠재적 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다[55]. 이와 유사하게 혜경궁은 공적 영역에서 혈연관계 나아가 여성이 점차 배제되는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거부감을 이 같은 현실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부정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표현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중록」은 공과 사, 제도와 혈연의 대립을 남성 대 여성이라는 젠더의 대립에 대응하도록 하는 움직임, 즉 여성을 정치와 제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담고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가부장제가 혈연과 지위의 엄격한 구분에 의해 강화되며, 이와 같은 상황에 부정적인 혜경궁의 태도가 공/사의 대립이 곧 남/녀의 대립으로 고착되는 상황, 곧 여성이 공적인 영역에서 소외되는 데 대한 불안과 저항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5 결론

이글에서는 임오화변에 대한 영조와 정조의 모순된 태도, 그리고 사도세자와 홍씨 가문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보는 혜경궁의 시각이 혈연과 제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문제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보았다.[56] 먼저 2장과 3장에서는 혜경궁이 영조와 정조를 '혈연'과 '제도'의 엄격한 구분을 중시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했다. 표면적으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태도가 실제로는 매우 유사한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며, 다만 영조는 혈연에 기초하지 않은 권력의 계보를 확립하려 했고, 정조는 혈연을 선택하기 위해 지위를 내려놓으려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임을 밝혔다. 4장에서는 정조와 같은 입장인 것처럼 여겨지는 혜경궁이 실제로 혈연과 지위의 긴밀한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조와 대립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흥미롭게도 「읍혈록」과 「병인추록」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갈등

55 장시광, 앞의 논문, 173-174쪽.

56 이때 「한중록」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본고에서 검토한 내용은 그것이 영조와 정조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현실에 대한 혜경궁의 이해로부터 비롯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인 혈연과 규범의 대립이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천륜과 종통의 대립 양상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조의 경우에 있어 혈연과 규범의 대립은 '불의로서의 효'와 '의로서의 불효'로 이해되는데, 이는 조선 후기 특정 소설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 「한중록」과 국문장편소설의 유사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이글에서는 임오화변과 이를 둘러싼 인물들을 이해하는 데에 국문장편소설의 독서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한중록」을 이해하기 위해 국문장편소설을 함께 읽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하였다.[57] 물론 국문장편소설의 독서가 「한중록」에 끼친 직접적인 영향을 주장하거나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이글의 목적이 아닐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한중록」과 당시 양반 여성들이 즐겨 읽었던 국문장편소설이 공통의 인식 가능한 조건이나 의미론적인 대립 구조에 근거해 당대 사회를 읽고 이해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

혜경궁을 국문장편소설의 독자로 보고, 「한중록」의 갈등을 당시 소설 속에 재현된 문제들과 관련지어 논의하는 것은 그녀를 단지 세손의 어미나 친정 가문의 대리인으로 보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대 사회의 핵심적인 갈등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재현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해 혜경궁을 조선 후기 가계 질서가 종법 중심으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입후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당대 여성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장편소설 속 여성 인물들이 혈연이나 친자관계를 위해서라면 악행도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형상화되면서 소설의 주된 독자인 상층 여성들의 종법제에 대한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면, 「한중록」은 혈연과 지위의 분리에서 비롯한 인물의 행위를 부정적인 것으로 그려냄으로써 여성이 제도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한중록」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대립이 혈연과 제도라는 데에 착안하여, 이 작품과 국문장편소설이 공통적으로 혈연을 제도로부터 분리하려는 데 대

57 「한중록」 제1부 「나의 일생」에서도 국문소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웅소설을 독서한 경험과 이 작품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김정경,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된다-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을 중심으로」, 『내가 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여성의 자기 서사』, 후마니타스, 2023, 94쪽.

한 위기의식과 저항을 내포한다고 보았다.

조선 후기 종법제가 강화됨에 따라 가문의 후계를 잇는 등의 문제와 관련된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정치로부터 친족을 떼어내고자 한 영조와 정조의 행위가 정치 혹은 권력을 욕망하는 것과 무관한 여성을 전제하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 후기 여성의 읽기와 쓰기 행위가 사적인 영역에 놓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담론으로 간주되었던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검토한 것처럼 여성들이 즐겨 읽은 소설과 이들이 쓴 자기서사 텍스트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 그리고 이에 따른 젠더의 구별을 야기한 혈연과 규범의 구별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이 텍스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가 겪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에 대한 특정 집단의 불안과 저항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텍스트들을 읽고 쓰는 작업이 그것 자체로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영조가 지우려 했고 정조가 꿈꿨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정치적 관계와 질서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여겨짐으로써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가치를 부여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텍스트들은 사적 영역에서 역사나 정치와는 별개의 잉여적인 담론으로 여겨지고 향유되었지만, 사실은 의도치 않게 정치 세계에서 형성되는 관계들을 재사유하는 담론의 장으로 존재했다는 점을 말하고자 했다. 다만 이러한 이글의 논의는 아직은 시론에 불과한 것으로, 추후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18-19세기 조선 여성의 소설 독서와 글쓰기 행위가 당대의 정치적인 문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공적인 행위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혜경궁 홍씨, 정병설 주석, 『원본 한중록』, 문학동네, 2010, 1-480쪽.

_____, 정병설 역, 『한중록』, 문학동네, 2010, 1-488쪽.

단행본

김용숙, 『한중록 연구』, 정음사, 1988, 1-394쪽.
김정경,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된다-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을 중심으로」, 『내가 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여성의 자기 서사』, 후마니타스, 2023, 94쪽.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8, 1-340쪽.
정은임, 『한중록 연구』, 국학자료원, 2013, 42-46쪽.
낸시 암스트롱, 오봉희, 이명호 역, 『소설의 정치사: 섹슈얼리티, 젠더, 소설』, 그린비, 2020, 123쪽.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안티고네의 주장』, 동문선, 2005, 29쪽.
피터 브룩스, 박혜란 역, 『플롯 찾아 읽기』, 강, 2011, 24쪽.

논문

구선정, 「조선후기 여성의 윤리적 지향과 좌절을 통해 본 가문의 정의-국문 장편소설 「완월회맹연」의 '소교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47집, 한국고소설학회, 2019, 5-40쪽.
김민정,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제도·혈연·이념의 상관관계 연구」,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1-73쪽.
김보현, 「「한중록」의 발화에 대한 양태 분석」, 『여성문학연구』 제3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191-215쪽.
김영민, 「정조대 임오화변 논의의 전개와 사회적 반향」, 『조선시대사학보』 제40호, 조선시대사학회, 2007, 281-320쪽.
이은순, 「顯隆園志·行狀과 閑中錄의 比較硏究」, 『한국학보』 제22집, 일지사, 1981, 40-58쪽.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제40집, 한국고소설학회, 2015, 83-109쪽.
이창기, 「성리학의 도입과 한국가족제도의 변화-종법제도의 정착과 부계혈연집단의 조직화 과정-」, 『민족문화논총』 제46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105-137쪽.
이화형, 「「한중록」의 극적인 특성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251-278쪽.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9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127-178쪽.
전기화, 「한국고전소설 형식의 몇 가지 문제」, 『고전문학과 교육』 제52호,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3, 99-138쪽.
정병설, 「한중록, 조선의 산문 고전」, 혜경궁 홍씨, 정병설 주석, 『원본 한중록』, 문학동네, 2010, 450-455쪽.
_____, 「인간과 정치의 겉과 속」, 혜경궁 홍씨, 정병설 옮김, 『한중록』, 468쪽.
정선희, 「「현몽쌍룡기」의 '인정받지 못한 아들' 양세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5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293쪽. 293-317쪽.
정하은·김창윤, 「사도세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사도세자, 양극성 장애 환자인가 당쟁의 희생양인가」,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3(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4, 299-309쪽.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家長權) 행사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0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155-184쪽.
최기숙, 「자서전, 전기, 역사의 경계와 언술의 정치학」, 『여/성이론』 제1호, 여이연, 1999, 122-139쪽.
최성환, 「한중록의 정치사적 이해」, 『역사교육』 제115호, 역사교육연구회, 2010, 129-164쪽.
한효정, 「조선후기 양반 여성의 모권(母權)과 입후(立後) 분쟁」, 『여성과 역사』 제38호, 한국여성사학회, 2023, 39-81쪽.
국사편찬위원회, 「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3월 10일 신사4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search/inspectionDayList.do.

Abstract

A study of Hyegyunggung's perception of reality in *Hanjoongrok*

Kim, Jong-kyoung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delve into the differing epistemological viewpoints of Yeongjo and Jeongjo concerning the deaths of Sado, and Hyeokgung's belief that Sado and the Hong clan share a common destiny. To achieve this, we focus on the third part of the *Hanjoongrok*. While previous analyses have highlighted Hye gyeonggung's role as "a mother" or "a daughter," this article places emphasis on her portrayal as a literary figure. Additionally, it observes that Hyegyeonggung's narrative of the family crisis and its resolution bears resemblance to Korean long form fictions which center around family lineage and succession.

In the main body of the text, we sequentially examine Yeongjo, Jeongjo, and Hye gyeonggung from this perspective. It is revealed that Yeongjo aimed to consolidate his authority by disregarding blood relations, whereas Jeongjo sought to relinquish his position in order to restore the obliterated blood ties. Furthermore, it becomes evident that Hyegyeonggung, though appearing to share Jeongjo's stance, actually stood in opposition to both Yeongjo and Jeongjo. The ostensibly contradictory actions of Yeongjo and Jeongjo stem from a shared principle of rigidly separating kinship from social status, whereas Hyegyeonggung aims for a closer intertwining of the two.

In conclusion, this article interprets Hyegyeonggung as a discerning figure who articulates and narrates significant conflicts and societal issues of her era. In essence, it views *Hanjoongrok* as a literary work that reflects a response to and defiance against the prevailing patriarchy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e act of reading and writing of women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can be seen as a highly visible political and public activity within society.

Key words: Sado, Hyegyeonggung, Youngjo, Jeongjo, *HanJoongrok*, Adoption

논문제출 / 2024.03.15.
논문접수 / 2024.03.18.
게재확정 / 2024.04.04.